

고향으로 유배온 한 소설가의 사람살이 이야기

《향 따라 여백 찾아가는 길》 펴낸 광의진씨

광의진씨(55)는 낙향한 사람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로서 서울에서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한때는 출판사 경영자로 나섰지만 모든 것을 접고 혼자 고향 진도에 내려왔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그가 한 일은 소설 쓰는 일이었다. 처음 몇 년간은 진도 서해의 잔인한 일몰을 견디며, 요즘은 남해가 보이는 여귀산 자락으로 거처를 옮겨 골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신산하고 다소 신비로운 광씨의 이력은 최근 펴낸 산문집 《향 따라 여백 찾아가는 길》(그림같은세상)에 고백처럼 적혀 세상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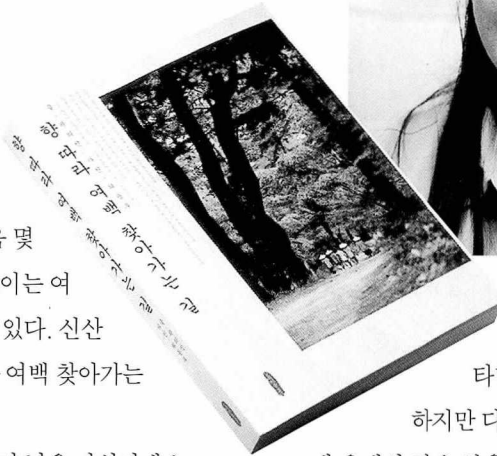
“이 글들은 《문화일보》에 연재한 소설 《꿈이로다 화연일세》가 낳은 자식이예요. 2년 동안 10매짜리 소설 원고를 매일 써내야 했죠. 밤을 지새고도 원고지 5매를 못 채우는 절망적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휴식 삼아서 이 글들을 쓴 셈입니다.”

《꿈이로다 화연일세》는 남중문문화의 대가인 소치 허 유(許維)의 인생 역정을 그린 작품인데, 광씨는 소설로 채 못한 이야기를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 산문집에는 소치의 손재주에 철리(哲理)를 붙여 넣어준 추사 김정희, 추사와 ‘이놈 저놈’ 하는 친구인 초의선사, 초의의 스승인 혜장스님, 혜장과 함께 유불선을 논하고, 초의에게 작설차를 얻어 마시던 시절의 다산 정약용이 등장한다. 광씨는 ‘차’(茶)로 맺어진 이들의 인연을 따라 구도의 길을 떠나는데, 여기엔 아픈 사연이 있다.

광씨가 1991년 ‘인간과예술사’ 라는 출판사를 차렸다가 4년 만에 몽땅 거덜내 버린 날 밤이었다. 그의 감은 눈 앞에 수염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큰 갓을 쓴 선비 한 사람이 한지로 정성스레 짠 무엇을 건네주더군요. 검자긋빛 도는 벼루였어요. ‘바로 그 어른이다, 소치 허유다’ 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글을 써야지 하고 생각하게 됐죠.”

삭발면벽의 자세로 소치의 고향이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진도로 내려왔다. 그때 머리를 맴돈 말은 ‘유배’ 였다. 어릴 때 떠나온 고향은 그에게 물 설고 사람 선



광의진씨
그림같은세상/A5변형/320면/13,000원

타향일 뿐이었다.

하지만 다산이 그랬듯, 광씨도 낯선 고향에 유배와 많은 일을 해냈다. 장편소설을 탈고했으며, 삼별초의 흔적을 좇은 창극 <진도에 또 하나의 고려 있었네>도 최근 국립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요즘 광씨는 고향 문인들과 《국진도》라는 향토 문화예술지를 창간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다. 기자 일행은 광씨의 지프를 타고 그가 3년간 살았던 세방마을, 현재의 거처 자운토방(慈雲土房), 읍내에 있는 친구의 음악카페와 술집을 옮겨가며 한껏 구경할 수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광씨를 흠모하는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 진도 읍내를 주름잡는 건달 두목이 길 한복판에서 “선생님, 나오셨는가요” 하고 90도로 몸을 숙이기도 했다. 광씨는 “시골 건달들은 아직 낭만이 있다”며 씩스러워 한다.

유배가는 심정으로 낙향한 그가 외로움과 싸우며 글을 쓰고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가끔씩 술병을 들고 찾아오고, 저자로 나가면 정답게 맞아주는 이 벗들 덕분이다. — 진도·강성민기자

프레게

안토니 케니 지음/최원배 옮김/320면/13,000원

이 책은 현대 분석철학의 창시자인 프레게에 관한 소개서로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설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 즉 쉽고 명쾌하면서도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프레게의 표현을 빌어 프레게 철학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프레게 원전을 읽어보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논리학의 첫걸음

서정선 지음/432면/16,000원

이 책은 논리학 입문서로 2000년도 더 넘게 이어오면서 변화, 발전한 방대한 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골고루 다룸으로써 논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적인 탐구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분석력을 발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니크

세상의 빛깔들 17권/안나리리아 가피 지음/채운경 옮김/48면/7,000원

이 책은 저학년을 위한 동화로 귀여운 강아지들의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니크는 갓 태어난 젓먹이 동생들을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샘을 내기도 하지만 씩씩하고 행복한 강아지다. 어느 날 막스 아저씨의 이상한 친구들을 만난 니크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니크는 이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an.net

http://www.seokwangsa.co.kr

지성과 감성 갖춘 영재는 책과 자연 속에서 자란다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펴낸 최희수씨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급한 마음에 대문을 두드리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낭랑한 외침이 돌아온다. 이내 문이 열리고 잔뜩 물 바른 머리에 둥근 빗을 꼈은 이 아이가 바로 ‘영재’ 푸름이다. 손님맞이로 머리손질을 하고 있던 참이다. 최희수씨(40)와 신영일씨(38) 부부는 푸름이와 초록이 두 아이를 영재로 길렀다. 그 경험을 모아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자유시대사)를 펴냈고, 강의테이프와 비디오 자료도 만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여러 목소리, 다양한 주제가 섞였다. 아빠가 마련해준 번데기를 사랑하고 싶은 초록이는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라고 노래를 불렀고, 푸름이는 젖은 머리를 말리느라 부산스러웠다. 임진강에서 잡아온 봉어는 펄떡이다 개수대 바닥에 떨어졌고, 전화벨도 무시로 울렸다.

‘평범한 부부의 특별한 자녀교육 에세이’를 주제로 단 이 책은 “정답이 없는 애 키우는 일”에 대해 해법 한가지를 제시한다. 바로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는 것. 최씨는 강의 테이프에 교육에 관한 자신의 근본철학인 ‘지성과 감성을 키워주는 원칙’을 담았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푸름이가 영재로 자란 과정을 기록했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라 자부한다.

“지성은 언어와 책을 통해 얻게 됩니다. 감성은 칭찬, 놀이, 스킨십 등 정서를 달래줄 수 있는 것들로 발달하게 되죠. 이런 지성과 감성이 자라는 무대는 물론 자연입니다. 자연은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푸름이는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고, 학원은커녕 선행학습도 하지 않는다. 아이의 눈빛을 세심하게 읽는 엄마의 노력 덕에 어릴 적부터 다양한 책을 읽었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영기고 싶어하는 아빠 덕에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었다.



최희수씨 가족
자유시대사/A5신/250면/8000원

“푸름이는 음악 영재도, 수학 영재도 아니에요. 책 읽기 영재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고, 독서로 쌓은 정보의 양과 새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월등합니다. 푸름이가 그렇듯 책을 읽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심성이 고울 수밖에 없어요. 책을 통해 도덕적인 판단을 배우니까요.”

푸름이 엄마 신영일씨는 내 아이만 영특하면 좋겠다는 욕심이, 교육과 사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세상 어린 생명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찾아들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바람은 그들의 영재교육론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푸름이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읽기로 영재를 기를 수 있고, 공교육제도 안에서 영재가 공부하고 제 꿈을 펼치는 전범이 될 것입니다. 영재에 대한 편견도 많지만, 1백명 가운데 뛰어난 다섯명을 영재라고 합니다. 푸름이를 모델로 영재교육을 한 아이들 가운데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신 기자

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동하리교미무료
대동전산

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용 기타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 CLC칼라출력
인화지, 단도필름, 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

출력문의 환영합니다

대동전산
2275-0196~7
E-mail: sogo0318@chollian.net

명보극장 ●
명보초등학교 ●
명보시장 ●
명보3가 지하정역 10번출구 ●
대동전산 ●
명보초등학교 ●
명보시장 ●